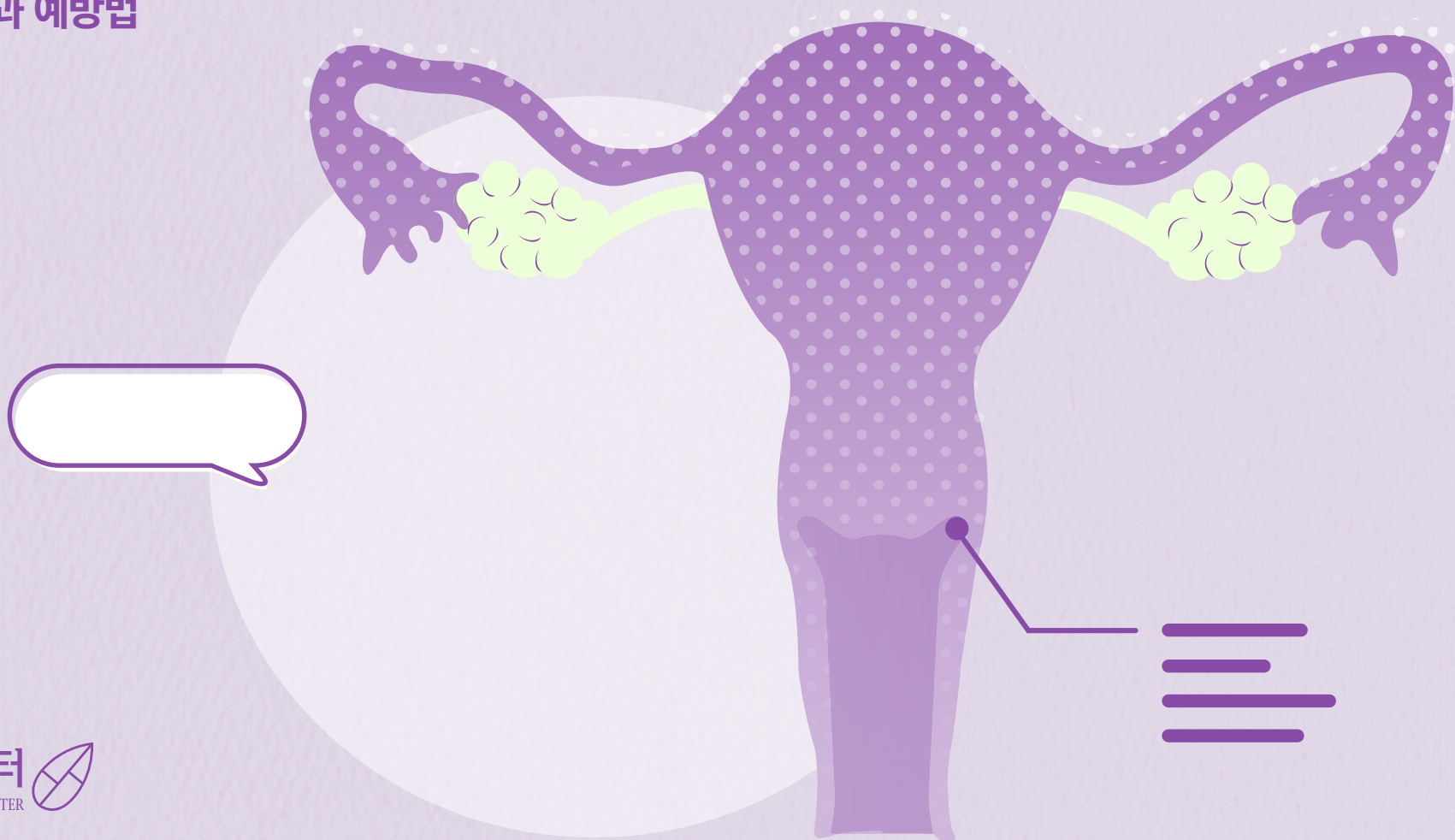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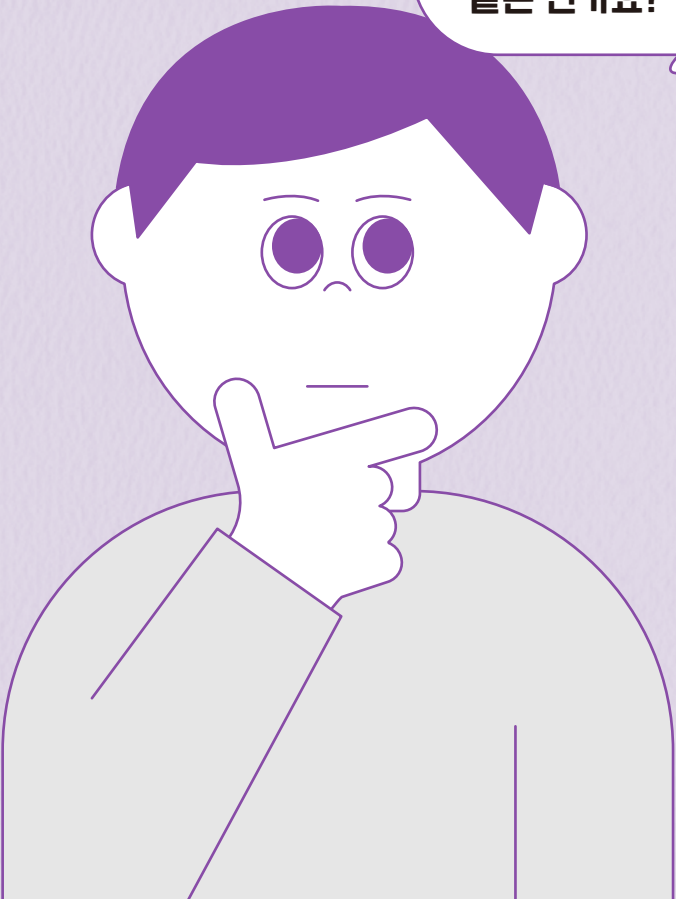


알기 쉬운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과 예방법



자궁경부암에 대해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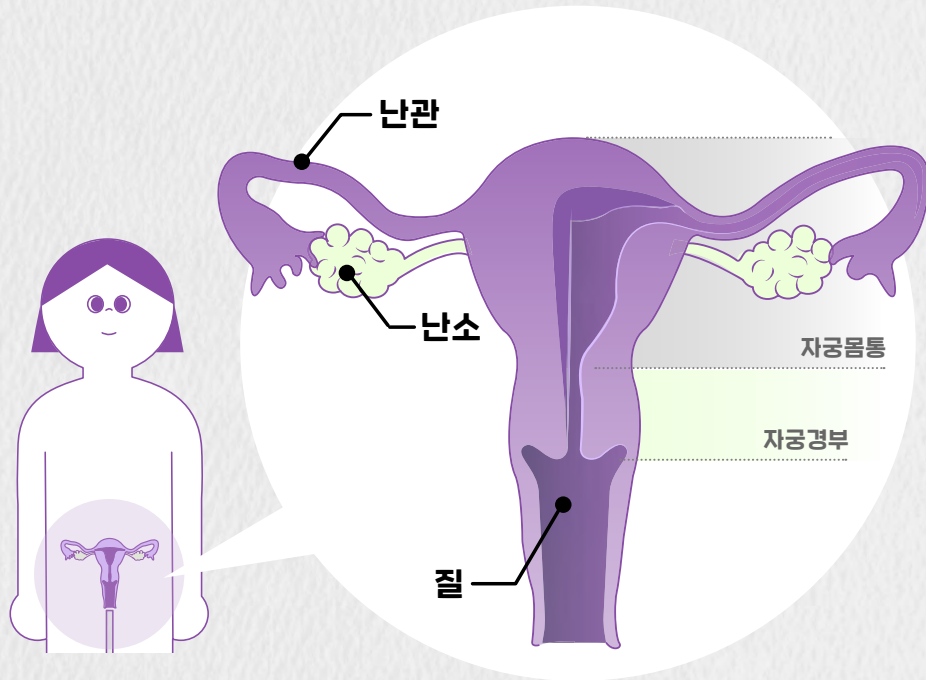


자궁암? 자궁경부암?
같은 건가요?

자궁은 알겠는데...
자궁경부는 어디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이라던데...

자궁경부는 자궁 입구를 말합니다



구조/위치

여성의 생식기관은 질과 자궁, 난관과 난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궁은 두꺼운 근육층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위쪽의 자궁몸통과 아래쪽(입구 부분)의 자궁경부로 나누어집니다.
자궁몸통 양쪽에 난관이 위치하고 자궁경부로는 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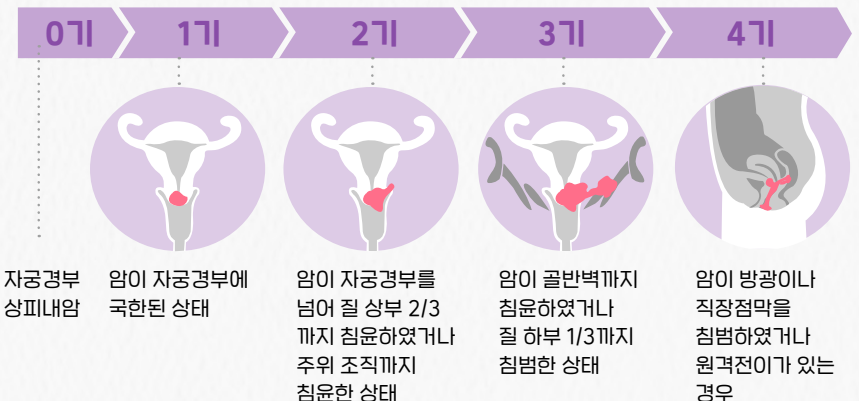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 · 종류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시작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발생 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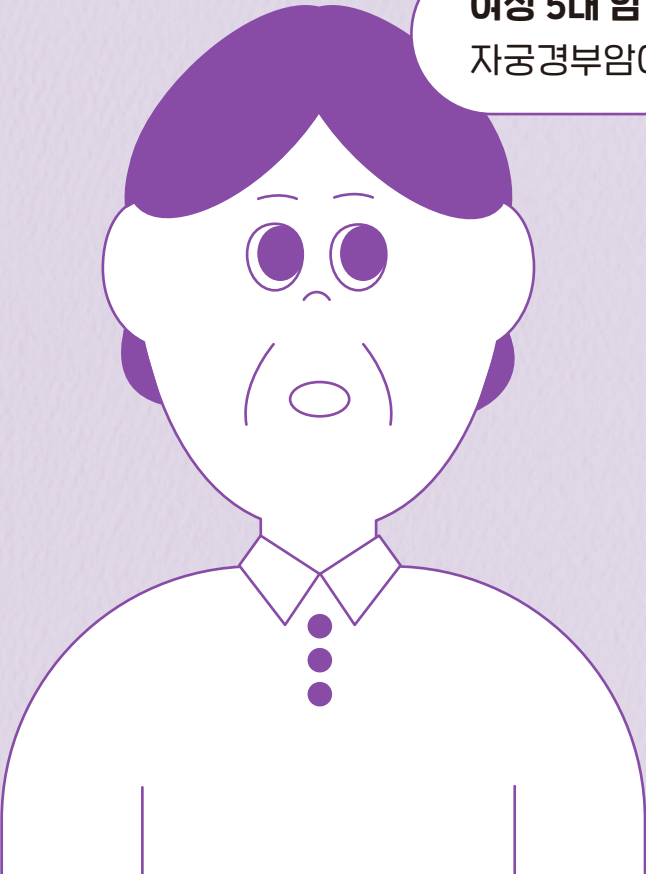
암이 되기 전인 전암 단계가 다른 암종에 비하여 긴 편이고,
암이 더 진행되면 주변의 장기로 암세포가 침범하거나,
림프관을 따라 암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세포암과
분비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 두 종류로 나뉘며,
자궁경부암의 80%가 편평상피세포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의 병기



자궁경부암은 줄어드는 추세라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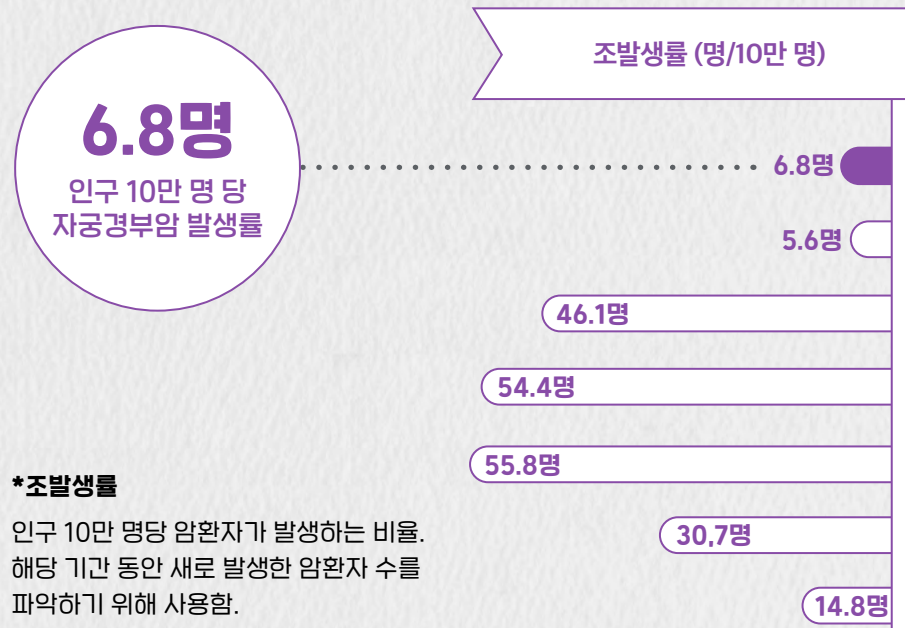
여성 5대 암 중 하나가
자궁경부암이 맞나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빨리 발견하면
완치가 쉽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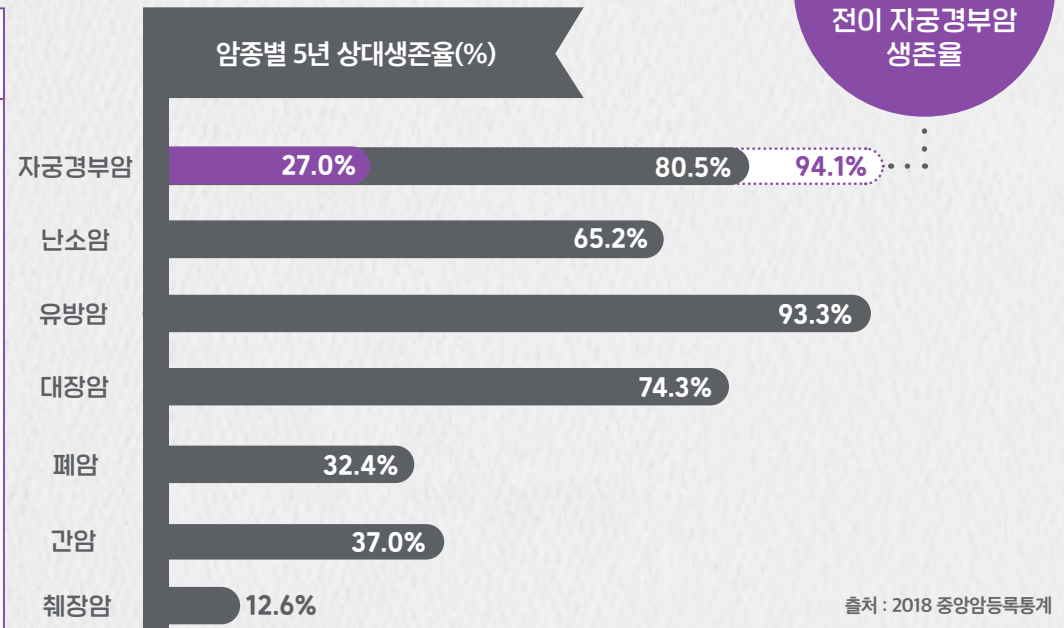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 여성의 암 발생률 8위인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1년에 3,500명 정도이고, 여성 암 중에서는 발생률 8위의 암종이지만, 다른 암종과 달리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4.8%로 가장 많고, 50대가 23.2%, 30대가 18.3%의 순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궁경부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80.5%이지만, 조기 발견 시에는 생존율이 94.1%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자궁경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의 생존율은 27.0%으로 낮아져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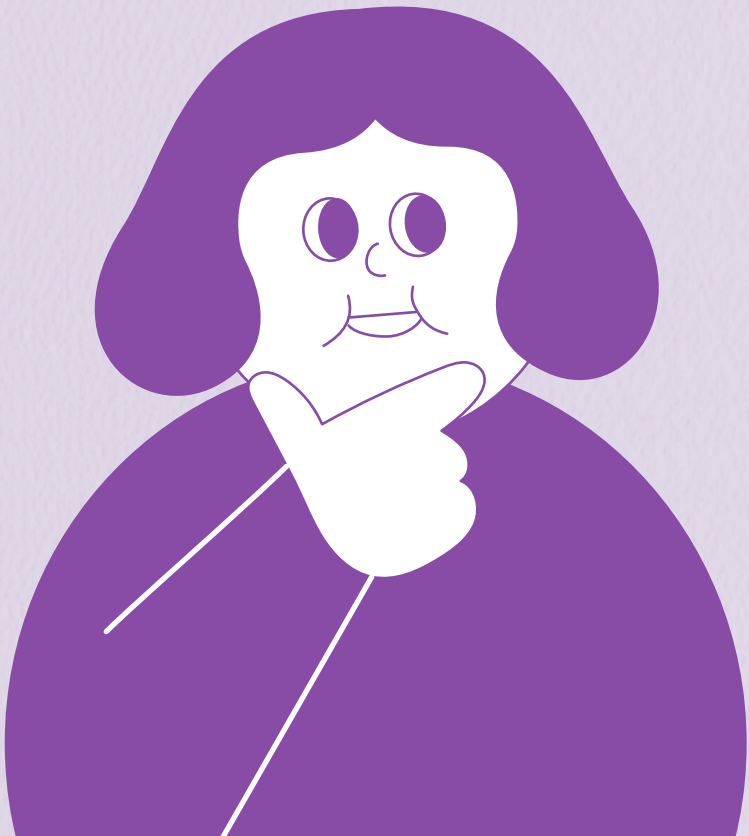


자궁경부암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생리통이 심한데 자궁경부암
증상 중 하나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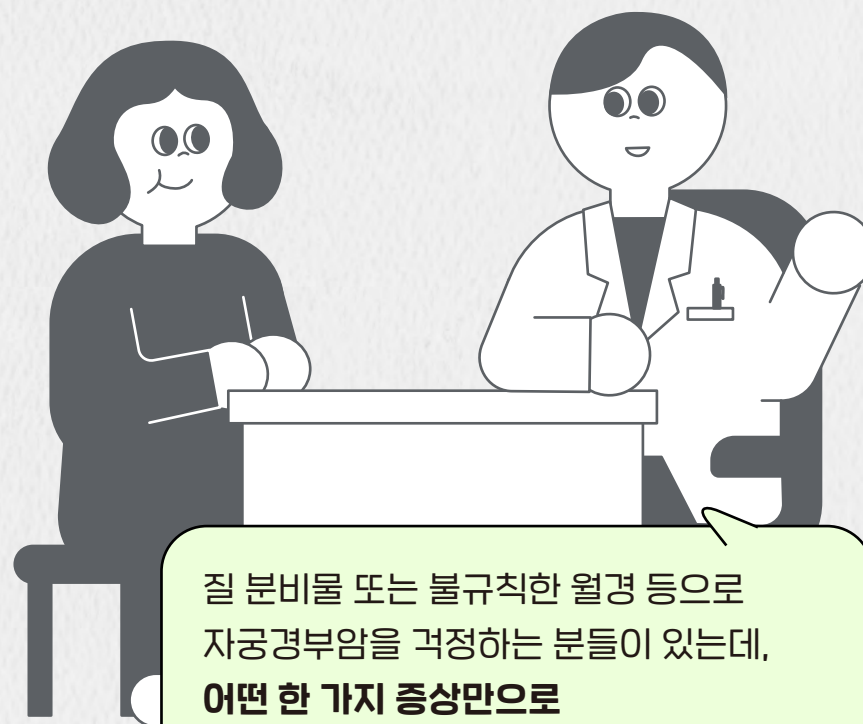
냉이 생겼는데,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리 기간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피**가
비쳐서 걱정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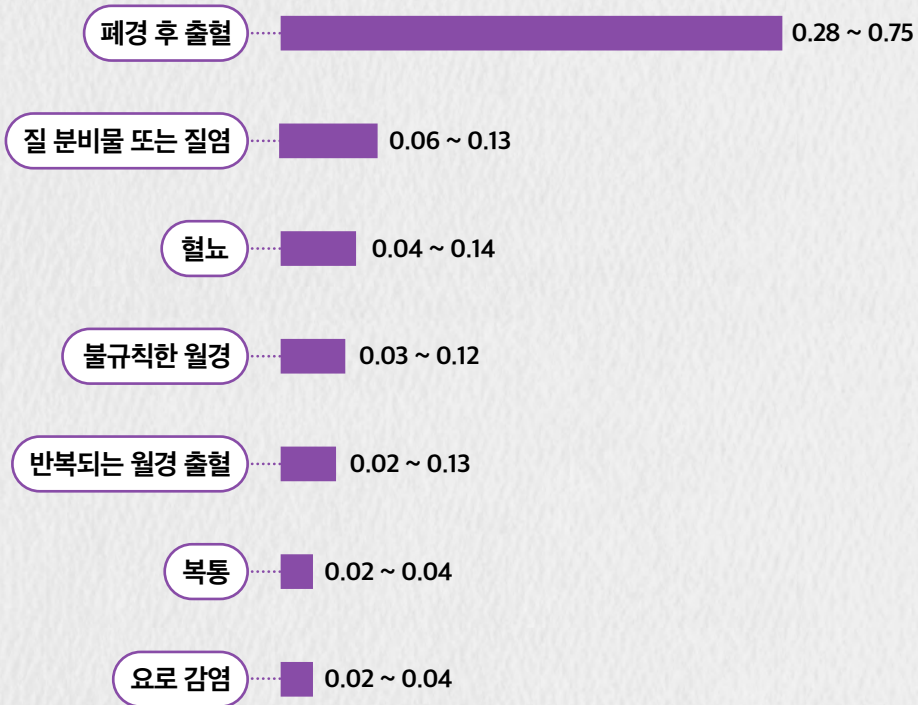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질 분비물 또는 불규칙한 월경 등으로
자궁경부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증상만으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증상이 있을 때 자궁경부암 진단 확률 (%)



출처 : Risk of cervical cancer in symptomatic women aged ≥ 40 in primary care:
A case-control study using records.,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2017)

자궁경부암 환자의 증상



생리불순이나 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
자궁경부암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리 주기와 무관한 질 출혈이 생기거나,
폐경 후에 질 출혈이 생기면 자궁경부암 확인을 위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검사받아야지 뭐~

자궁경부암 검사는
초음파 검사로 하나요?

어떤 병이든 **MRI** 찍으면
다 나오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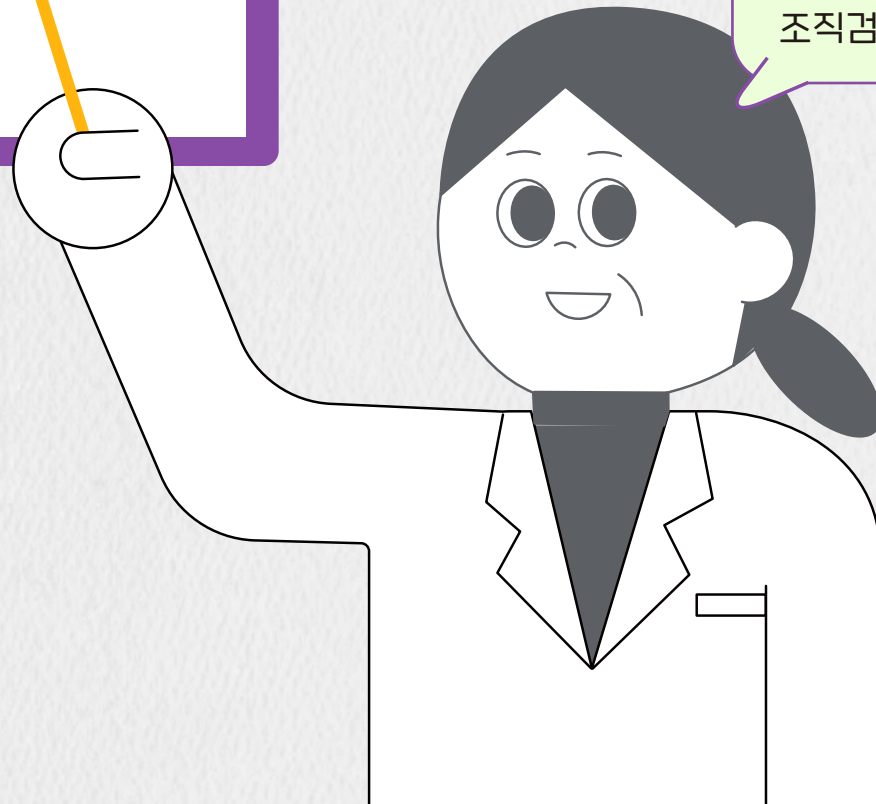


자궁경부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야 합니다

- 골반내진 검사
- 자궁경부세포 검사 Pap smear, 팍도말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PV test
- 질 확대경 검사
- 경질 초음파 검사
- 골반 MRI 자기공명영상

자궁경부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진료 상담 후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자궁경부암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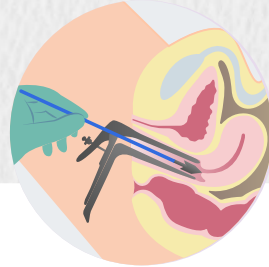


자궁경부암 의심 증상자 대상 진단 검사

※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 자궁경부암 관련 진단 검사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함



골반내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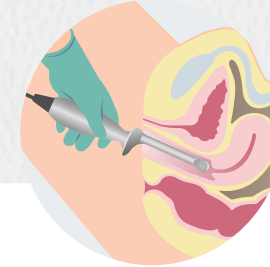
자궁경부세포 검사
Pap smear, 팍도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PV test



질 확대경 검사



경질 초음파 검사



골반 MRI
자기공명영상

질을 통한 의사 진찰로
자궁 주변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질 입구를 넓히는
기구(질경)를 넣어
자궁경부를 보이게
한 다음 세포 채취용
브러쉬로 자궁 경부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

자궁경부세포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

질 확대경 검사는
자궁경부세포 검사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검사 방법

초음파를 이용해
골반안(골반강)을
살펴보는 검사로 질
내부에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함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궁과
골반의 이상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는 경우 암이
주변 조직에 침범했는지,
골반이나 복강으로
전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며 CT보다 해상도가
뛰어남.

장점

- 짧은 검사 시간
- 비방사선

- 저렴한 검사 방법
-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 가능

-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
평가 가능
-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 가능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 및 치료를
동시 시행 가능

비방사선

- 정확도 높음
- 비방사선

단점

검사자 숙련도에 따른
정확도 차이 있음

검사 시 약간의
불편감 동반

검사 시 약간의
불편감 동반

비용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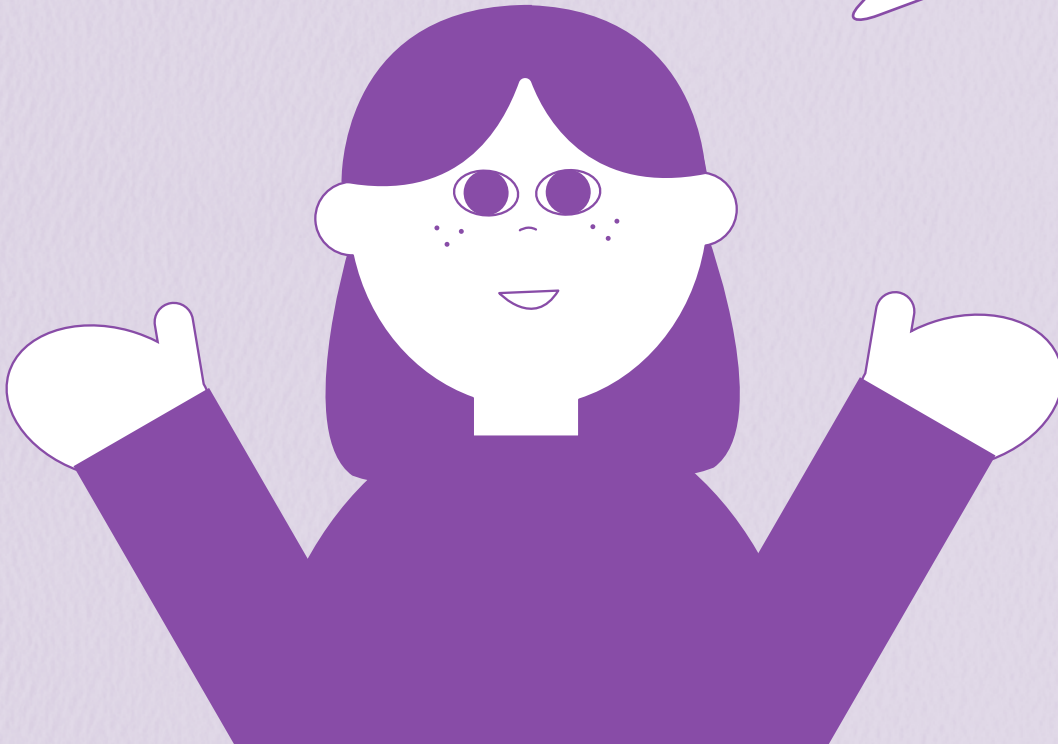
● 탐촉자 : 초음파진단기 본체와 진단하고자 하는 인체부위 간
초음파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장비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은 없나요?

기본 건강검진만 정기적으로
하면 충분할 듯한데...

초음파 검사받으면
무조건 알 수 있어요?

HPV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에게 권고합니다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해
2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통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20세 이상 여성은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2년마다**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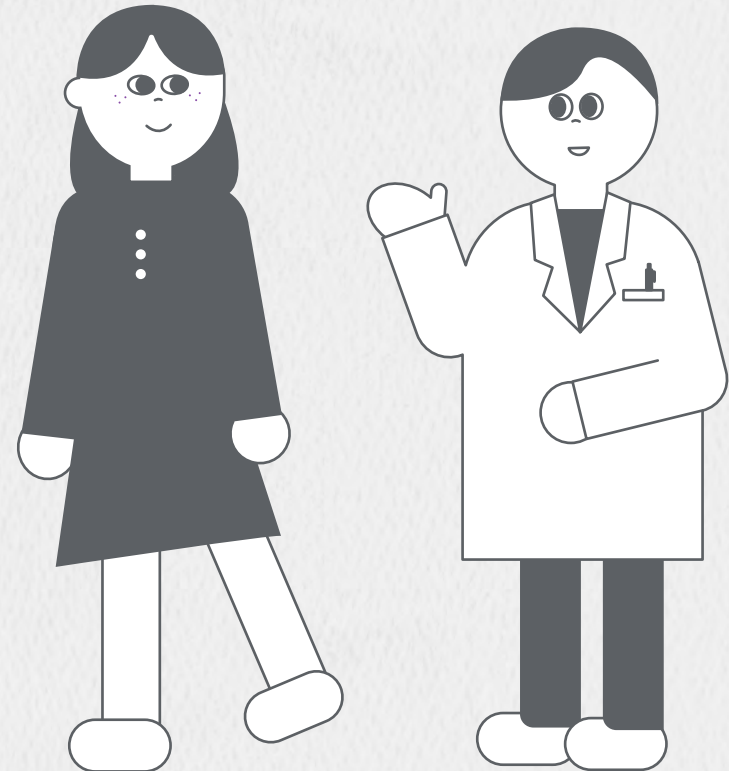
검진 $\neq$ 진단 검사

검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진에서 해당 질병이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단 검사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자궁경부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학적 검사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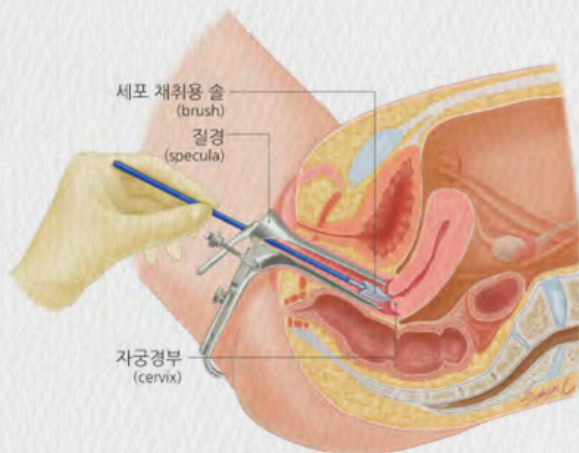
자궁경부세포 검사는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에 효과적입니다.

대규모 인구 집단 대상 연구 결과,
자궁경부세포 검사의 검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통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는 질경을 질 내부로 삽입하여 자궁경부를
확인하고, 브러쉬로 자궁경부세포를 채취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 기간을 피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와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자궁경부암 검진은

국가암검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20세 이상 여성

방법 자궁경부세포 검사

검진 주기 2년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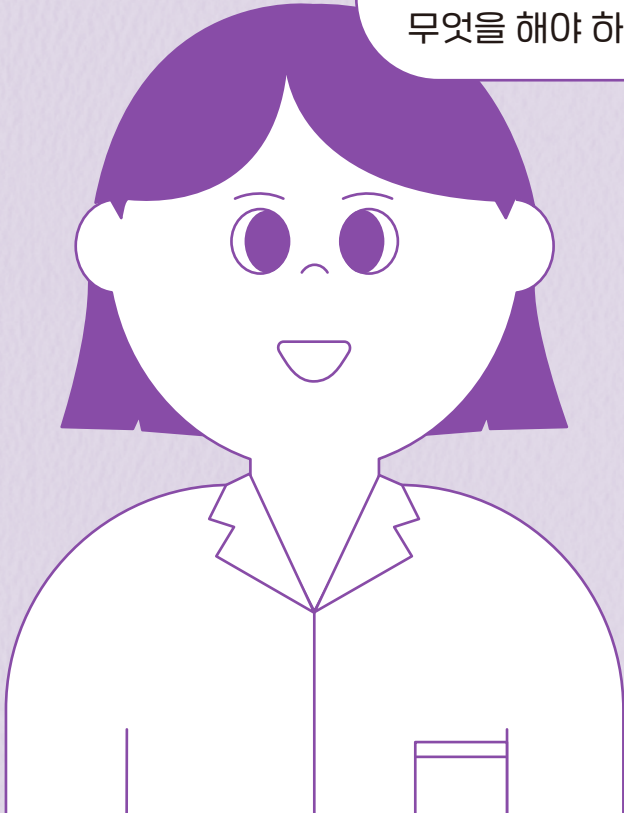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였더라도,
100%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아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였더라도 주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자궁적출수술을 한 경우에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자궁경부를 포함한 전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신 경우
주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때문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주변부 재발 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예방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효과가 큰**
자궁경부암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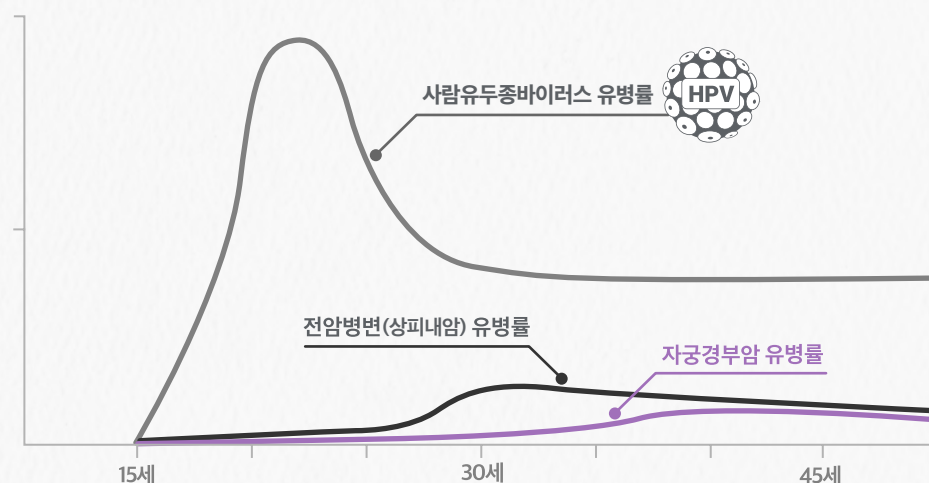


자궁경부암은 95% 이상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대부분은 피부 접촉 및 성관계를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10명 중 1-2명, 성인 남성 10명 중 1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자궁경부암 발생의 상관관계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명확하며 근거가 충분함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나 권고할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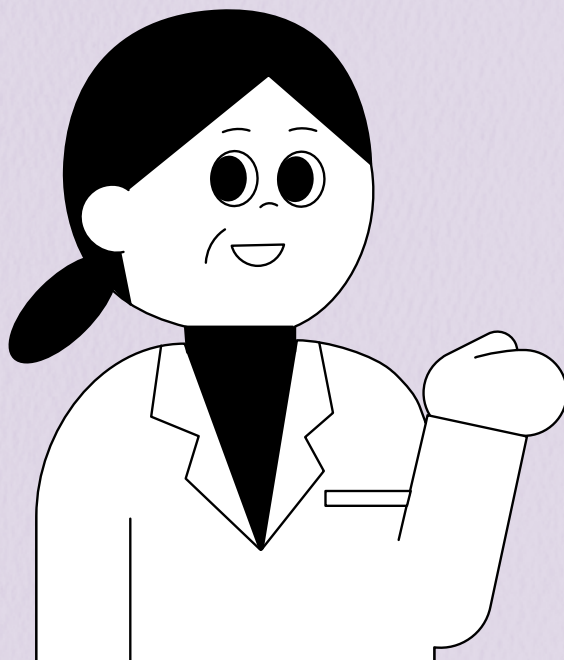


명확한 관계가 없거나 근거가 매우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위험 요인		예방법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 예방 접종 지침에 따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받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흡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식생활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주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신체 활동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비만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직업/환경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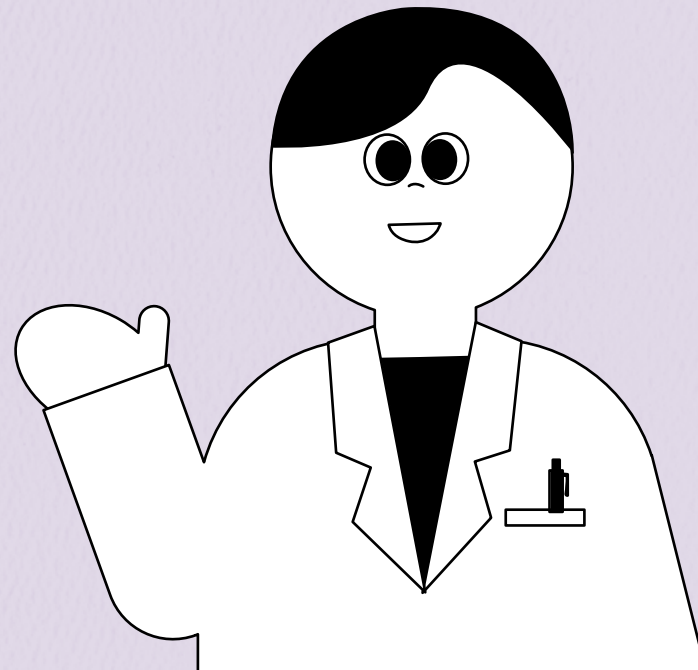
걱정 말아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9-26세 사이 여성이시라면
예방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20세 이상 여성은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알기 쉬운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과 예방법

발행처 국립암센터

저자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편집/디자인/일러스트 소소한소통

발행일 2023. 3. 20.

본 정보지는 국립암센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것입니다.

본 정보지의 판매 또는 상업적 사용은 금합니다.

국민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행처인 국립암센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SN 2982-8724

